

News

코로나19로 위기맞은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연합뉴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 다만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

ESG 등급 높으면 대출이자도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은행들, 대출금리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반영해 메리츠 주는 지속가능 연계대출을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은행들이 적극적이다. 전세계에서 최초로 지속가능연계대출이 실행된 건 2017년...이에 반해 한국은 다소 출발이 늦어...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금감원 권고안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하나은행 관계자,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강조

DLF사태 로펌에 고객정보 유출..하나銀 법적분쟁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DLF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위해 전체피해자 1000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로펌에 통째로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고소
하나은행측, "당시 민원은 6건이지만, 창구 등을 통해 수많은 문의가 있어서 포괄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로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했다"

5월 車보험 손해율 6~9%P 감소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1~82% 수준을 유지
코로나19로 여파로 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세가 5월까지 이어져...'이태원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야외활동 자제가 5월까지 이어졌기 때문

기준금리마저 밀도는 손보사 자산 수익률...장기보험의 늪

파이낸셜뉴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11개 종합 손보사들의 ROA는 평균 0.46%로 지난해 같은 기간(0.54%)보다 0.08%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손보사들은 주식 투자 비중도 미미해 최근 증시 반등의 반사이익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점쳐져...오래도록 이자 부담 안기는 장기보험 영업 과열 '악순환'

빛내 주식투자...신용융자 20개월만에 11조원 돌파

연합뉴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3일 기준 11조467억원으로, 2018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조원을 넘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1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최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는 지점

비상장법인 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4천400만건 무료 개방

연합뉴스

공개되는 정보는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 분야의 50개 서비스, 5천500개 항목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약 58만건의 비(非)외부감사법인 정보에 의미를 부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